믿은 예배의 실종과 오해
네 가지 형태의 잘못된 예배

성경말씀: 막12:28-30

왜 우리는 예배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요4:23-24).

경배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꿇어 엎드려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 오래 참으심을 구하는 것이다. 구원, 성화, 감사, 찬양, 전 인생이 다 예배이다.

맥아더 책 1장의 제목: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것이다.

그의 대답: 현시대 교회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 〉

예배에 대한 오해

버리토(burrito), 토티야에 콩과 고기 등을 넣어 만든 멕시코 요리(*)

토티야 혹은 또띠야(옥수수, 말가루 등으로 만듦) (*)

1977년 미국 뉴멕시코 주 레이크 아서에 사는 마리아 루비오는 버리토를 만들다가, 토티야 1장에 난 냄비 자국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흥분한 그녀는 남편과 이웃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모두 토티야에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데 동의했고 실제로 그 얼굴은 로마 가톨릭교의 예수님 형상과 비슷했다. (*), (*) 그래서 이름이 예수 토티야임, 구글 검색하면 자세히 나온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사제를 찾아가 그 토티야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놓았다고 간증하며 그 토티야를 축복해 달라고 했다. 그녀의 남편도 그 토티야가 집에 온 후로 그녀가 더 평온하고 행복하고 고분고분한 아내가 되었다고 했다. 토티야를 축복해 본 적이 없는 사제는 조금 주저하긴 했지만 요청대로 축복해 주었다.

루비오 부인은 토티야를 집으로 가져와 앞면이 유리로 된 상자에 넣고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솜을 깔아놓았다. (*) 그녀의 남편은 그 상자를 놓아둘 특별한 제단을 만들었다. 부부는 그 모든 것을 뒤뜰에 있는 다용도 창고에 갖다 넣고 그곳을 작은 신전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방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토티야 예수의 신전을 찾아왔다. 그리고 모두 토티야의 그을린 자국 안에 있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2년 동안 3만5천 명 이상이 그 신전을 방문했다. 28년 동안 성스러운 토티야를 보러 오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을린 자국이 흐릿해지고 형상을 알아보기도 힘들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전에서 경배드리길 원했다.

그러다 2005년에 루비오 부인의 손녀딸이 수업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토티야를 학교에 가져갔는데, 누군가가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다. 루비오 부인은 부서진 토티야 조각들만 남은 유리상자를 계속 간직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그것에 관심 갖지 않았고, 결국 루비오 가족은 점점 황폐해 가는 신전의 문을 닫았다.

맥아더의 말: 내가 처음 토티야 유령에 관한 글을 읽었을 때 그것은 중세의 미신으로 돌아가는 독특하고 기이한 현상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다. 사람들은 피자 토핑에서, 토스트 조각의 그을린 자국 속에서,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자국에서, 바나나의 갈색 반점에서, 나무의 나이테 모양에서, 모양이 기형인 치토스 과자 속에서, 물이 새는 욕조 옆의 녹슨 자국에서, 구운 치즈샌드위치의 탄 자국에서, 벽에 생긴 물 얼룩에서, 다른 수많은 토티야에서,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야기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인터넷에 올라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 유령에게 경배하러 몰려든다.

2012년에 또 다른 토티야 예수가 등장했다(*)

그리스도는 사진, 제 2차 세계 대전 말기 눈에 덮인 중국 오지의 촌길을 의심에 잠긴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가고 있었다.

그는 말등에서 "오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 때 즉각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곳은 눈이 녹기 시작하여 이곳 저곳에 검은 땅이 나타나 보기에 흉한 들판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들려오는 명령에 따라 그는 말에서 내려 그 장면을 그 카메라에 잡았다.

집에 돌아와 그 필름을 현상 했을때 거기에는 온유와 사랑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사진과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이런 말과 사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

요즘도 사진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예배 실종

맥아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탄 토티야, 기형의 치토스, 녹슨 자국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왜곡된 예배의 개념이, 건전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진정한 예배보다 더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예배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만,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곳에서는 참된 예배가 거의 드려지지 않고 있다.

나는 예배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교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약해지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말이다. 반대로 말하면, 참된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만큼 당신의 영적 성장과 성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을 장악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다. 그런데 이에 실패하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교리는 성경 본문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예수님은 막12:28-30에서 신명기 6장 4~5절을 인용하며 예배가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음으로써 예배가 최우선임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 명령이 예배를 요구하며 또 규정하고 있다.

출20:1-5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에게만 예배해야 한다. 출25-40장의 대부분 성막

이집트 탈출기 이후에 레위기가 나온다. 레위기는 구원 이후의 예배에 대한 것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이 나온다. 성막은 '오직' 예배를 위해 설계되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다. 그곳을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다. 성막 안에는 앉는 자리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앉거나 보살핌을 받기 위해 그곳에 가지 않았다.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해 가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성막에 갔다.

예배가 잘못되면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1.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거듭 심판하셨다. 출32장,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을 때 그들 가운데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출 32:7~28). 이러한 심판의 행위는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2. 레위기 10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에 임명된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처음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그들은 '이상한 불'을 담아 분향했다(1). 어쩌면 포도주를 마신 뒤에 제물을 바쳤을 수도 있다(레 10:8~9 참조). 어떤 경우든, 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올바른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하게 행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즉시 죽이셨다. 그날은 슬픈 날이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날을 평생 고대해왔는데, 첫날 한 번의 잘못된 행위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3. 사무엘기하 6장에 보면 웃사라는 사람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이 정도로 예배는 중요한 것이다.

합당치 않은 예배의 네 종류

성경은 적어도 네 가지 범주의 잘못된 예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1.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

첫 번째는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다.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4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의 반복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름이 질투하는 자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들을 숭배한다. 로마서 1장 21절은 모든 인간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타락한 온 인류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라고 말한다.

그런 후 바울은 우리 인류가 더 악한 형태의 거짓 예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역사를 설명한다. 바울의 묘사대로 인간 타락의 본질은 바로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짓 예배에 빠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려는 데서 시작된다.

참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가 숭배할 우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악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다. 바울은 그것을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한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22~23절).

24절은 거짓 신들을 숭배함으로 인한 쓰라린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은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라고 말하며, 28절은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라고 덧붙인다.

부적절한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이 죄를 범하고 그 결과를 맞닥뜨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죄가 삶을 점점 더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서 1장 32절~2장 1절 말씀처럼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숭배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영적인 창조물이며, 숭배의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설계해 넣으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 하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무신론자도 마찬가지다. 무신론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

거짓 신들은 물질적인 대상이나 신화적 초자연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

2. '잘못된 형식으로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두 번째 합당치 않은 예배는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7~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입술로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자기들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믿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축소해 버렸다.

신명기 4장 14~1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어떤 명확한 형태로 형상화하지 않으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기적,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으셨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의 형상으로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즉 토티야 예수 같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그려보아야 하는가? 그 어떤 모습도 그려볼 수 없다. 그 어떤 하나님의 시각적 개념도 그의 영원한 영광을 제대로 표현할 순 없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빛의 조각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자신의 방식대로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세 번째 잘못된 예배는 '자신의 방식대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삼하 6장의 웃사 등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죄를 범했다. 그것은 돌로 만든 우상에 예배하는 것만큼 잘못된 예배이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체계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마15:3). 그들의 예배는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4. '올바른 방식으로 참 하나님께 예배하나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것'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예배보다 훨씬 더 미묘한 형태의 거짓예배는, 바로 '올바른 방식으로 참 하나님께 예배하나,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모든 거짓 신을 없애고 모든 형상과 자신이 만들어낸 예배 방식을 없앤다 해도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다시 말한다. 올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가? 당신의 마음은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가득한가? 솔직히 말해 보자. 우리 중에 이런 질문에 아무 주저함 없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라기 1장에 보면 대충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온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등 구약 시대 대언자들은 잘못된 태도로 예배드리는 죄악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이사야서 1장을 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교회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교회의 실패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는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토티야, 형상들, 의식이나 형식 또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둔 예배들이 그렇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예배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자신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잘못된 태도나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예배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 우리의 평생 사역이 그것에 달려 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또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간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것을 감히 무시할 수 없다. 일이 아나라 예배를 택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것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